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6호 HYUNBULNEWS.COM 2025년 4월 9일(음력 3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불기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기원하는 미륵사지탑 등(燈)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밝혔다. 5월 6일까지 불을 밝히는 '치유·평안·화합의 미륵사지탑 등(燈)'은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빛이 되고, 불안한 일상에 평안을 전하며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겼다. **사진=김내영 기자**



4월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

'MZ축제'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

4월 3일, 코엑스서 개막식
'깨달음 찾아라' 주제 진행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4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망의 막을 열었다.

'너의 깨달음을 찾아라! 부디즘 어드벤처'를 주제로 한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4월 3~6일 서울을 대표하는 컨벤션센터 코엑스와 도심 속 천년사찰 봉은사를 연계, 도심에서 펼쳐지는 불교계 종합 테마파크를 목표로 전개됐다. '산업전'과 '붓다 아트페어' '해외 교류전' '히든 담마 챌린지' 등 한층 풍성해진 콘텐츠로 운영됐다.

올해 박람회는 총 368개 업체가 참여해 481개 부스를 운영했다. 올해는 인근 봉은사에서 진행된 2025 국제선명상대회와 연계, 더욱 다채로운 불교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MZ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다.

개막식에서 진우 스님도 MZ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축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전통문화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박람회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현장 차주상보〉

선명상 대중화 7개월 여정 'START'

국제선명상대회, 4월 1일 봉은사서 개막식

2~6일 체험프로그램 진행
9월까지 선명상 행사 열려
10월 국제 컨퍼런스 예정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5 국제선명상대회'가 4월 1일 오후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7개월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안, 세계 평화'를 주제로 한 '2025 국제선명상대회'는 4월 2~6일 서울 봉은사 곳곳에서 진행될 선명상 프로그램 체험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사찰에서 선명상을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10월 국제 선명상 컨퍼런스를 끝으로 회향한다.

이날 개막식은 최근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법성게 독송으로 막이 올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회사에 앞서 최근 산불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 미얀마 지진을 언급하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자비행을 실천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설명하며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인 지관수행을 바탕으로 집중명상과 통찰명상을 아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선명상은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수행법"이라며 "바쁜 현대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 속 수행인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을 소개하며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선명상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제도화의 정책적 제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선명상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전문적인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고 더욱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선명상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명상 대중화를 기대하며 각계각층에서 축하도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이번 국제선명상대회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선명상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라면서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병고와 삶의 번뇌를 벗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계종은 이날 개막을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봉은사에서 157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연다. 초급부터 전문 과정까지 단계별, 목적별로 구분한 프로그램을 직접 고를 수 있는 맞춤형 명상법이 제공된다. **〈현장 차주상보〉**

'2025 국제선명상대회'는 가을까지 이어진다. 5~9월 인천과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호남, 제주 등 전국 주요사찰에서 선명상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10월, 서울 조계사에서 '국제 컨퍼런스 및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2025 국제선명상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관련 기사 5면〉

현대불교신문, AI상담봇 '해심이' 오픈

4월 1일 홈페이지서 서비스
국제불교박람회서 시연행사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진우 스님이 본지 AI상담봇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4월 1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교상담 서비스 '해심이'(解心)를 공식 오픈했다. '해심이'는 구글의 제미나이 무료버전과 구글 AI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불자 맞춤형 신행 상담은 물론 마음 치유, 명상, 수행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불교신문 뉴스사이트 현불뉴스(hyunbulnews.com)에서 상담봇 아이콘을 누르면 별도의 상담창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4월 3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된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해심이'를 직접 체험하는 시연행사를 진행했다. 개막식 이후 부스들을 라운딩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해심이'를 살펴보고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이 AI기술을 활용하여 불교대중화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은 향후 AI기술과 불교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불교 신행문화의 대중화와 실생활 속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앞으로도 AI기술을 활용,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사 령

명)편집국 편집국장 **여 수 령**
2025년 4월 1일부
이상 1명

국난극복과 마음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
담선대법회란 고려시대에 국가에서 3년마다 개최한 법회로, 선(禪)의 지혜로 국난극복과 국운융성을 발원하는 법회입니다.
(중심교재 : 육조단경)
4. 14월 – 4. 20일 (7일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
문의전화 02. 768. 8600 조계사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전국선원수좌회 주관 조계사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4. 20(일) 오후3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4.19(토) 오후3시 상원사 용문선원장 관송 의정 대종사
4.18(금) 오후3시 축서사 조실 금곡 무여 대종사
4.17(목) 오후3시 백양사 수좌 월송 일수 대종사
4.16(수) 오후3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편양 현묵 대종사
4.15(화) 오전11시 석종사 조실 금아 혜국 대종사
4.14(월) 오후3시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봉정 영진스님